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미사 안내

Thanksgiving인 23일(목) 오후 12시 미사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성당 웹페이지

새로운 성당 웹페이지를 개설하였으니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chkcc.org입니다.

● Thanksgiving 파티

오늘 미사 후 Thanksgiving 파티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파티에 도움을 주신 분들(김광대 율리아, 신명숙 글로리아, 윤모니카, 황태영 카타리나) 감사합니다.

● 영화의 밤

11월 26일(일) 친교 후 영화 “오빠 생각”을 상영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경애원 후원

성탄절을 맞아 한국의 경애원 후원을 위해 모금합니다. 기존의 후원자들과 새로이 후원하실 분들은 12월 10일(일)까지 권혜원 로사리아 자매님께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 크리스마스 초청 파티

대 남부 뉴저지 한인회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인근의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즐거운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셔서 맛있는 오찬과 함께 준비한 프로그램 즐기시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장소: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Parish Hall)

일시: 12월 9일(토) 오전 11시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치유와 용기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하면서 양승숙 마리아, 고정림 세실리아, 방영애 레나타, 옥달영 안드레아, 박영목 다니엘 그리고 김영순 스텔라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라파엘 구역>

오세환, 이정현, 김추자, 김성욱, 권수희, 김성철, 신명숙, 이경실, 안우풍, 장한민, 최미라, 권선용, 김명자, 홍혜자, 김영복, 장석영, 장인숙, 김윤선, 이순덕, 강옥화, 고은비

<엘리사벳 구역>

정경재, 정의환, 최만섭, 최화숙, 황선동, 황태영, 신용철, 신선희, 방효선, 방영애, 김광영, 김명희, 송현배, 송현숙, 문만기, 문혜숙, 김영두, 김영숙, 이금주, 이보현, 김글라라, 김충수, 김영순, 김희겸, 김덕자

<레지나 구역>

김레지나, 최영숙, 김희동, 김혜정, 윤모니카, 김광대, 윤현석, 오윤주, 김재숙, 하국일, 김성문, 김정숙, 유명옥, 이상민, 이수영, 권혜원, 권준오, 송미라, 배진형, 배향숙

● 구역 모임

- 1) 레지나 구역 : 11월 28일(토) 송미라 클라라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 2) 라파엘 구역 : 12월 3일(일) 친교 후에 있습니다.

알립니다!

* 꽃봉헌과 미사봉헌은 이수영 에우푸라시아 자매님(484-995-9638)

* 친교명단을 친교실에 공지하였습니다.

* 이번달 상품권판매는 레지나 구역 입니다.

이번달 친교실 청소담당은 기도회 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담당은 엘리사벳 구역 입니다.

(친교실 청소는 매달마다 돌아가면서 담당합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Church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평협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오후 12시

치유미사(Healing Mass) :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나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평협회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73)
제1독서	잠언 31, 10-13. 19-20. 30-31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제2독서	테살로니카 1서 5, 1-6
복음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음	† 마태오 25, 14-30 <또는 25, 14-15. 19-21>
봉헌성가	400번 주님과 나는 (78)
성체성가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197)
퇴장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399)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연중 제33주일 11월 19일	그리스도왕대축일 11월 26일	대림 제1주일 12월 3일
제1독서	김정숙 이사벨라	권명자 울리안나	김정숙 이사벨라
제2독서	김희동 프란치스코	김성현 바오로	이수영 에우푸라시아
성혈분배	김성현, 윤모니카	김성현, 김형수	김정숙, 윤모니카
친교봉사	성모회	최순덕 안나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의 비유를 보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길을 떠났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합니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와 두 탈렌트를 받은 이는 저마다 받은 돈을 활용하여 두 배씩 벌었지요. 반면 한 탈렌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두렵다는 핑계로 활용하지 않다가 급기야 쫓겨났다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주님께 받은 탈렌트, 곧 재능이 있습니다. 저마다 그 능력이 다를 뿐이지요.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1코린 3,6).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저마다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잘하는 일을 다른 이는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이가 쉽게 하는 일이 나에게서는 매우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것을 나의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모든 일을 내가 다 하려 하다 보니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 자신의 역할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얼마만큼 했다면, 다른 사람이 그다음 일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 다섯 탈렌트를 받은 사람이나 한 탈렌트를 받은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일꾼임을 명심하며 서로 협력해 나가는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2분 교리

계시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없는 신비, 즉 생명·구원·영생의 신비를 하느님께서 직접 드러내신다는 것이다. 계시에는 대자연과 인간의 양심을 통해 드러내는 간접계시와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친히 드러내시는 직접계시가 있다.

오늘의 미사지향

<연미사>

지향 : 김명자 울리안나 자매님의 언니 유부순 테레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봉헌자 : 라파엘 구역

우리들의 주일정성 <11월 12일(일)>

봉헌금	\$430.00	
교무금	\$150.00	장한민(6-10)
Total	\$580.00	